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강 신 묵
<새생각회 회장>

‘지식은 사람을 날게 하는 날개’라고 셰크 피어는 말했다. 이렇게 소중한 지식은 주로 독서로 얻어진다.

젊은 외교관 속에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 많다.

만일 당신이 잘 살고 싶으면 부지런히 독서하라. 그러나 함부로 어떤 책이나 읽지 말고 목적과 계획을 세워 읽어라. ‘쓸데 없는 것 100% 보다 좋은 것 10% 갖는 것이 좋다.’는 말처럼 주간지나 저속한 만화 따위에 빠지지 말고 단행본을 읽어라.

가령 발명책을 고른다면 발명저술가가 쓰고 발명 그림이 많은 것으로 하라.

S무역사의 영업부장 K씨. 직장까지 왕복 2시간의 출퇴근하는 동안 아침 저녁의 기차속에서 3년 동안 프랑스어를 공부하여 프랑스회화를 익혔다.

공무원 P씨. 왕복 3시간의 전동차안에서 시간 때우기 위한 신문이나 주간지 읽기를 그만 두었다. 이렇게 한 20여년의 독서는 대학 시절에서 읽은 10배 이상의 책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목욕탕에 들어앉아서 책을 높이 쳐들고 있는 일본인, 도서관까지 가지고 있는 미국의 농부들의 왕성한 독서열이 오늘의 부강한 일본과 미국을 만들었다.

성공발명을 하려면 부지런히 독서하라.

약 백 년 전 미국의 특허국장이 사임할 때 ‘앞으로는 발명되어야 할 것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발명이 적어진 것을 지적하고, 진실로 가능한 것은 이미 전부 발명됐으므로 특허국은 이제 문을 닫아야 한다’고 사직이유를 말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기를 합친 것만 한 과학과 기술이 이룩됐다.

전등, 비행기, 라디오, 자동차, TV, 원자로, 우주선, 컴퓨터 등 매우 적은 예를 들 수 밖에 없으나 모두 그 뒤에 발명품이다. ‘오늘날 중요한 발명은 이미 다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틀렸다는 것을 그 뒤 일 년을 넘기지 않고 증명됐다. 과학분야의 발견과 기술분야의 발명이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으니 말이다. 발명은 단 한 사람의 천재가 한 것은 거의 없다. 언제나 발명의 공을 세울 수 있었던 사람은 그 사람에 앞서 다른 많은 사람이 모아놓은 지식을 토대로 삼아 그 일을 해냈던 것이다.

에디슨은 다른 사람이 이미 눈과 빛과 전기의 연구를 하여 그것에 관한 지식의 보고를 에디슨에게 제공해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영화도, 기계도, 전등도 발명하지 했을 것이다. 에디슨은 책을 읽고 과학적 보고를 연구하여 선인들이 발견한 사실을 배웠다.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은 것을 재발견할 필요가 없었고 그것을 이

용하여 그 자신의 새로운 발명을 하는데에 더욱 정진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의 많은 실례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발명세계의 전형적인 실례의 하나이다.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이 세계의 지식창고에 무엇인가를 더하고자 각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써 일했었다.

이 광대한 지식의 창고는 서적과 영상의 형태로 우리들 모두가 손에 넣을 수 있고, 앞으로 더욱더 새로운 발견과 과학의 놀라운 업적을 향하여 우리들이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는 길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식은 바로 눈앞에 있다. 그것은 읽어서 응용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책이나 영상자료에서 지식을 얻어 그것을 새롭고 위대한 발견, 발명의 수준에 오를 사다리로 삼아 내일의 에디슨이 되자.

자사제품 없이 기업살리

중소기업이 제대로 크지 못하는 까닭은 자기 제품을 못 가진 데 있다. 자사의 독특한 기술과 공업소유권을 안가지고 또 독특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거대치런 대기업의 판매 창구에 경쟁회사인 수많은 회사들이 함께 밀려들어 판매경쟁을 하게 된다. 특징없는 제품은 별 수 없이 값으로 하는 과당경쟁뿐이다.

모 기업에겐 발밑에 밟혀서 가격에 눌러 내키지 않는 주문일지라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외판원들이 기를 쓰고 주문받기 경쟁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사의 표준제품이 없으면, 공장능력을 채우기 위해 수주 조건이 좋고 나쁨을 가릴 수 없다. 그래서 종류는 많고, 일정한 생산이 안되어 자주 변경된다. 시간적 손실이 생기고, 작업은 언제나 능률이 오르지 않고 종업원은 고도의 숙련을 익힐 수 없다.

기술 부족, 아이디어 부족 등에 따라 얼마나 많이 기업이 무너지고, 허덕이고 있는지 안타깝다.

중소기업은 창의 연구에 따라 신제품을 만들어 공업소유권을 얻지않고는 성장 발전할 수

없다.

자기들이 아니고는 안된다는 신제품을 갖지 않고서는 아무리 해도 자본이 적고, 인재가 안모이는 중소기업이 번영 발전할 수 있겠는가?

성공한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모두가 이처럼 남이 따를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는 법칙을 지키고 있다.

신제품이더라도 결코 중앙기술연구소나 대학의 연구실에서 태어난 것처럼 고도의 것만이라야 된다는 법은 없다. 그것은 사장의 아이디어로부터 종업원의 조그만 제안에서 태어나기도 했다.

선진국의 중소기업은 각자 전문화가 되어 있어서 대기업이 할 수 없는 독자의 제품을 가지고 번영하고 있다. 가공도가 높은 제품이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제품, 대량생산이 안 되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공업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작기는 하더라도 그 독자의 분야에서 남이 따를 수 없다는 높은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곳에는 출혈이란 없다. 바람없는 무풍지대이다.

독일에선 특허 없이는 기업하지 말라는 것이 불문룰처럼 되어 있다.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했다. 내세울 것 하나 없이 기업을 하는 것은 올가미 없는 개장수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나라처럼 어리 같까 저리 같까 하며 들뜨는 기업의 설 자리는 없다. 유망한 공업소유권없이 기업하겠다는 얼빠진 생각은 꿈을 꾸어서도 안된다.

유전 없이 유전 있다

경쟁 회사가 훌륭한 신제품을 만들어 특허로 독점해 크게 벌고 있을 때, 그것을 그저 보고만 있는다면 못났다.

특허관리사가 있는 회사라면 곧 그 특허공보를 구해 조사하고 그 특허 주변을 연구해야 한다.

한 유전이 발견됐다면 그 주변에는 틀림없이 석유나올 곳이 있게 마련이다.

더 큰 광택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적의 특허 주변을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재미있는 실례가 있다. 트랜지스터의 발명은 미국의 벨사가 개발한 것, 그 특허료만도 5천 명의 연구원을 50년간 먹일 수 있을 정도의 대발명이다. 이 특허 범위는 엄청 넓어서 모두 그의 범위 속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주변을 파도 헛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아무리 넓게 권리 범위가 났더라도 맹점은 있게 마련. 신용도의 발견말이다. 미국에선 트랜지스터를 군용에 사용 평화적이용으로 귀가 먼 사람의 보청기로 쓰는 정도였다.

그런데 일본의 소니가 그것의 주변 개척을 시작하여 라디오에 쓰는 데 성공, 그래서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거꾸로 미국에 무섭게 역수출됐다. 물론 권리료는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트랜지스터는 한 개에 백 원 가량이다. 그 몇 % 를 권리료로 지불해도 대단한 것은 아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1만원이상한다. 그것을 몇 백만 개나 수출했으니 이쪽이 훨씬 득이다. 이

것은 분명히 주변개척으로 큰 수가 난 실례이다.

다시 소니의 E씨와 조수는 세계의 학자들이 트랜지스터의 정도를 높이고자 99.99999999란 9가 열 개나 붙은 통칭 텐 나인의 고순도의 트랜지스터를 연구할 때 그와는 반대로 순도를 떨어뜨려 가지까 99.999쯤에서 놀라운 스위치 작용을 하는 것을 찾아냈다. 그것이 바로 예자끼 다이오드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이 다이오드의 주변 개척을 시작해 다이오드를 전자 계산기에 썼더니 계산속도가 천배나 빨라졌고 또 그것을 기억장치에 써서 30 배나 빨리 기억하게 만들어 특허냈다. 따라서 예자끼다이오드 한 개에 1~2원의 특허료에 비하면 1억원짜리 전자 계산기는 백만 원이란 특허료를 미국이 받고 있다. 소자본, 소인원, 소설비의 중소기업은 남이 손대지 않는 부분인 주변을 파라. 주변이라고 갈보지 말라. <♣>

상표 및 특허 정보자료 이용 안내

특허청에서는 상표 및 특허 정보자료를 각 시도 상공회의소 및 시립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으며 또한 단말기를 특허청 열람실 및 민원안내실, 대한변리사회, 한국발명진흥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말기 설치장소

설치장소	소재지	전화번호
특허청 열람실	강남구 역삼동 823-1	(02)568-8151-교환 261
민원안내실	풍림빌딩 12, 17층	568-6074
대한변리사회	강남구 역삼동 831	(02)552-0882-5
한국발명진흥회	강남구 삼성동 159(발명장려관)	(02)551-5571-72